

부정 접두사 'Dis-'와 'Un-'의 비교*

성태수

(남서울대학교)

Sung, Tae-Soo. 2007. Comparison between Dis- and U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5(2), 23-38.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larify the similarities and distinctions between the English prefixes dis- and un- on semantic basis. Both dis- and un- can be affixed to adjectives, nouns and verbs, among which this article concerns verbs in general. Dis- is affixed to both intransitives and transitives, which derives negative meaning, reversative meaning and privative meaning on the basis of the semantic features of the verbs combined with dis-. Whereas un- is affixed only to transitives. Then, of the three kinds of meaning, un+transitives owns either reversative or privative meaning just except for negative meaning. In this process, one problem occurs that the verbs combined with un- are derived as causatives even though they are not causatives before combined. This means that un- may affect the semantic features of the verb to be combined with itself. This discord doesn't happen to any derivative of 'dis+verb'. We assume that there are two kinds of un-. One is what combines with adjectives. This other is what combines with transitives. 'Un+transitives' are always causatives. In order to derive a causative including causer and causee, un- should be affixed to transitives with two arguments that will be realized as causer and causee, respectively. As for the similarity between dis- and un-, we find that reversatives and privatives are semantically derived, dis- and un- being affixed to part of the verbs. This is because dis- and un- negate only [+state] semantic features in the semantic representations. Through this discussion, we find another significant fact that un- endows external arguments with causer role and internal arguments with causee role.

주제어(Key Words): [+state] semantic features, Negative, reversative, privative, logical structure, inchoative, transitivity, eventuality

1. 머리말

* 이 논문은 2006학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좋은 제안을 주신 익명의 두 심사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접두사 dis-는 라틴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dis-가 고대불어 접두사 des-를 거쳐 영어로 유입된다. 반면 접두사 un-은 고대영어에 기원을 두고 있다 (Marchand 1969).

접두사 dis-와 un-이 다른 어기(base)에 첨가될 때, 특히 dis-와 un-이 동사에 첨가될 때 이를 의미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갖는다.¹⁾ 두 접두사는 동사와 결합하여 회귀성(reversativity) 의미, 탈취성(privativity)의 의미를 지닌다. 또한 접두사 dis-와 un-은 형용사에 첨가되어 부정성 의미의 대립어를 파생하고, 명사에 첨가되어 결핍이나 탈취 의미의 명사를 파생한다. 이와 같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두 접사는 의미적 활용 면에서 다양한 차이점을 보인다.

이 논문은 두 접두사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 살펴본다. 2장은 접두사 dis-와 un-을 비교하여 활용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본다. 3장은 접두사 dis-와 un-이 공통적으로 어기에 결합되어 부정성, 회귀성, 탈취성 의미로 해석되는 원인이 두 접두사가 결합되는 동사 의미구조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dis-는 모든 종류의 형용사, 동사와 결합될 수 있는 반면, un-은 형용사나 사역동사와 결합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사역구조와 상관없는 접두사 dis-는 자동사와 결합하나, un-은 하나의 논항만을 선택하는 자동사와 결합할 수 없고 타동사와 결합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4장은 동사 'un+어기'의 사역구조에는 causer와 causee에 해당하는 두 개의 논항을 포함되어야 한다는 가정 하에 주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5장은 결론이다.

2. Dis-와 Un- 의 비교

접두사 dis-와 un-은 어기와 결합하여 공통적으로 부정성, 회귀성, 탈취성의 의미를 파생한다. 아래 표를 살펴보자.

1) dis-가 라틴어에 기원을 둔 어근과 결합될 경우에는 분리 혹은 부정의 의미를 가진다. 다음은 Richek (2000)의 예이다. disparate (not+equal), discord (apart+heart).

표 1. dis-와 un-의 비교

	부정성	회귀성	탈취성
dis-	dishonest distrust disagree	disconnect disengage disappear	dishonour disarm disillusion
un-	unhappy unmixed undisciplined	uncover unbend untie	unnerve unlock unharness

즉 접두사 dis-는 형용사나 동사에 첨가되어 부정성 의미를, 동사에 결합되어 회귀성과 탈취성 의미를 파생한다. 접두사 un- 역시 형용사에 첨가되어 부정성 의미를, 동사에 첨가되어 회귀성과 탈취성 의미를 파생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통점 이외에 두 접두사 사이에는 많은 형태론적, 의미적 차이점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접두사 dis-와 un-의 차이점을 살펴보자. 첫째, dis-와 un-이 역사적으로 첨가되는 동사의 기원을 달리한다. 접두사 un-은 일상적 형용사나 단순동사인 주로 고대영어에 기원을 두고 있는 동사나 명사에서 파생된 동사와 결합하여 부정성, 회귀성, 탈취성 의미를 생성하나, 최근에는 강력한 파생력을 바탕으로 라틴어에 기원을 두고 있는 수많은 단어와 결합하고 있다.

접두사 dis-는 disjoin과 같이 일반적으로 라틴어에 기원을 둔 형용사나 동사와 결합하여 부정성, 회귀성, 탈취성 의미를 생성한다(disbar, disfrock, discourage). 일부 명사는 사역성을 의미하는 접미사 -ize, -ify, -ate와 결합해 사역동사를 파생한 후 그 파생된 사역동사는 dis-와 결합하여 회귀성 혹은 탈취성 의미를 갖는다(disanimate, disassociate, discanonize, disaffiliate, disorganize, disintegrate, disharmonize, dishabituate, disqualify 등). 이 경우의 dis-는 현재 오히려 접두사 de-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있으며 de-파생어가 최근 신조어로써 매우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de-centralize, de-electrify). 실제로 de+동사는 부정성 의미를 가지지 않고 회귀성과 탈취성 의미만을 가진다. 동사와 결합하여 회귀적 의미의 동사를

파생하는 부정접두사들 중에서 un-은 dis-나 de- 보다 더 큰 파생력을 보인다.²⁾

둘째, 표1에서와 같이 접두사 dis-는 형용사, 자동사, 타동사 모두에 첨가될 수 있으나, un-은 형용사와 타동사에 첨가되고 자동사에는 첨가될 수 없다. 다음의 예들은 un-과 자동사가 결합될 수 없는 예를 보여준다.

(1) disappear/*unappear, disagree/*unagree

셋째, 접두사 dis-는 동사와 결합되어 부정성 의미를 파생하나, un-은 동사에 첨가되어 부정성 의미를 파생할 수 없다. 즉, 표1에서와 같은 dis-는 trust와 같은 [상태성] 의미자질을 가진 동사와 결합하여 부정성 의미를 가진 어휘를 파생할 수 있으나, un-은 [상태성] 의미자질을 가진 동사와 결합하여 부정성 의미를 가진 어휘를 파생할 수 없으며, [상태성] 혹은 [비상태성] 의미자질을 가진 동사와 결합하여 회귀성 혹은 탈취성 의미의 동사를 파생한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 dis-와 un-의 차이점

	dis-	un-
여기의 어원	대부분 라틴어	고대영어와 라틴어
여기의 통사범주	형용사, 자/타동사, 명사	형용사, 타동사, 명사
[상태성] 동사와의 결합 여부	가능(부정성)	가능(회귀성) ³⁾

이상과 같이 접두사 un-과 dis-는 의미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단어형성과정에서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 다음 장은 이와 같은 차이점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해 본다.

2) Marchand (1969) 참고하시오.

3) Horn and Miller(2005)는 접두사 un-이 [상태성] 의미자질을 가진 동사와 결합되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 사실은 3장에서 논의될 것이다.

3. 의문점

3장은 un+타동사의 성격에 대한 Sung(2006)의 주장을 살펴보고, 두 접사간의 차이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두 가지 문제점을 살펴본다.

Sung(2006)은 un-과 동사의 결합에서 동사는 반드시 타동사라야 하며⁴⁾, un+타동사는 자신의 회귀성 의미구조에서 반드시 CAUSE라는 운영자연결소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의미에서 un+타동사는 항상 사역동사이다. (2)의 예문들은 각각 (3)과 같은 의미구조로 표시될 수 있다. (2)에서 uncover는 cover행위 이전의 상태로 회귀함을 의미한다.

- (2) a. John covered the green house.
 b. John didn't cover the green house.
 c. John uncovered the green house.
- (3) a. [do'(John)] CAUSE [BECOME covered' (the green house)]
 b. ~[do'(John)] CAUSE [BECOME covered'(the green house)]
 c. [do'(John)] CAUSE [BECOME NOT(UN) covered'(the green house)]

또한 Sung(2006)의 주장에 따르면, un+타동사가 회귀성 의미와 탈취성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접두사 un-이 자신과 결합되는 동사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동사의 의미구조에 포함된 [상태성] 의미단위만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즉(2c)의 uncover가 회귀성 의미를 갖는 이유는 (3c)에서 보여지 듯 un-이 [상태성] 의미단위인 covered만을 부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주장과 맥을 같이 하여, (3)과 같은 un+타동사의 의미구조는 dis+타동사의 의미구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회귀적 의미를 가진 disassemble동사의 의미구조는 다음과 같다.

4) 다음은 어기동사가 타동사일 경우의 예들이다. settle/unsettle; reel/unreel; ravel/unravel; pack/unpack. 반면 다음의 예들은 어기동사가 자동사일 경우는 비적격형이 된 예들이다. walk/*unwalk, flow/*unflow, run/*unrun.

- (4) a. John assembled the machine.
 b. John didn't assemble the machine.
 c. John disassembled the machine.
- (5) a. [do'(John)] CAUSE [BECOME assembled' (the machine)]
 b. ~[do'(John)] CAUSE [BECOME assembled'(the machine)]
 c. [do'(John)] CAUSE [BECOME NOT(DIS) assembled'(the machine)]

(5c)에서 dis-는 [상태성] 의미단위인 assembled만을 부정하고 있다. (2-5)에서 동사 cover와 assemble은 각각 un-이나 dis-와 결합하고 회귀성 의미의 대립어 uncover와 unassemble을 파생한다. 그러나 표2에서 지적했듯이 (6)의 회귀성 의미구조에서 un-이 타동사와만 결합되는 반면에 dis-는 자/타동사와 결합하여 회귀성 의미구조를 가질 뿐만 아니라 해당 동사가 [상태성] 의미자질을 가진 자/타동사와 결합하여 부정성 의미구조를 가진다. 표2에 근거해 두 접두사 간의 차이점이 설명되어야 한다.

다음 예문에서 disagree, distrust, disappear, dismount, disclose의 접두사 dis-는 해당 동사의 의미구조에 포함된 [상태성] 의미자질만을 부정한다.

- (6) 부정성 의미 (agree, disagree [상태성] 자동사)
 a. A V.
 b. A dis-V.
- (7) 부정성 의미 (trust; distrust [상태성] 타동사)
 a. A V B.
 b. A dis-V B.
- (8) 회귀성 의미 (appear; disappear [비사역성] 자동사)
 a. A V by A's becoming V-ed.
 b. A dis-V by A's becoming NOT V-ed.
- (9) 회귀성 의미 (mount; dismount [비사역성] 타동사)
 a. A V B by A's becoming A-ed to B.
 b. A dis-V B by A's becoming NOT A-ed from B.
- (10) 회귀성 의미 (close; disclose [사역성] 타동사)

- a. A V B by A's causing the object of the verb to become V-ed.
- b. A dis-V B by A's causing the object of the verb to become NOT V-ed.

(6-7)에서와 같이 상태성 의미를 가진 동사인 경우는 사건의 변화나 원인이나 그로 인한 결과적 사건이 없으므로 become이나 cause가 존재하지 않는다. 파생어 dis+동사가 회귀성 혹은 탈취성 의미를 가지는 (8-10)은 의미 표시에 cause, become 포함한다. (8-10)에서 become이 필요한 이유는 이 부류의 동사들이 상태의 변화나 사건의 진행(process)과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며, (10)에서 cause가 필요한 이유는 A에 의해 발생하는 행위(action)가 또 다른 사건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dis+동사의 의미 구조는 회귀성 의미를 지닐 때 cause를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 (9)에서 dismount는 회귀성 의미를 지니면서도 사역성을 포함하지 않는다. (9)가 전치가 to와 from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사역의 의미가 없는 dis+타동사의 목적어는 항상 목표역(goal) 혹은 원천역(source)을 갖기 때문이다. 결국, 접두사 dis-는 모든 동사와 결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표2에서 지적했듯이 Horn and Miller는 un-도 see와 같은 [상태성] 타동사에 첨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파생 후 타동사 unsee는 부정성 의미가 아닌 회귀성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는 dis-가 [상태성] 타동사와 결합하여 부정성 의미를 지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다음은 Horn and Miller(2005)이 제시한 예이다.

- (11) Once we construct 'order' from 'chaos', we find it incredibly difficult, if not impossible to unsee order.

Horn and Miller(2005)는 (11)이 상황적으로 회귀성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정문이라고 주장한다. (11)의 의미구조는 (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2) [DO (x,[do'(x)])] CAUSE [BECOME NOT seen(y)]

(11)와 (12)에서 unsee는 사역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12)에서 보여 지기

전의 상태로 회귀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의문점이 생긴다. 과연 파생 전 see의 의미구조에 존재하지 않는 CAUSE 운영자가 어떤 문법 과정을 통해 unsee의 의미구조에 존재하는가이다.

요약하면, 접두사 dis-는 형용사, 자/타동사에 결합되어 새로운 단어를 파생한 후에도 원래 해당 형용사나 동사의 의미구조를 변형시키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dis-와 결합되는 동사가 자동사이든 타동사이든 또한 해당 동사가 사역성 의미를 가지는 사역성 의미를 가지지 않든지 파생 후 dis-는 함께 결합되는 해당 동사의 의미구조에 포함된 [상태성] 의미단위만을 부정한다. 또한 접두사 un-은 항상 타동사와 결합하며, 파생된 un+타동사는 CAUSE 운영자연결소를 가지는 사역동사이다. 해당 동사가 타동사이더라도 접두사 un-과 결합되기 전 사역동사가 아닌 경우는 un-이 이들 동사에 첨가된 후 해당 동사의 논리구조를 변화시킨다.

4. 의미론적 고찰

4장은 3장에서 지적했듯이 dis-와 다르게 un-이 자동사와 결합할 수 없는 이유를 생각해 볼 것이며, 또한 un-이 사역 의미가 없는 타동사와 결합 한 후 그 타동사가 어떤 이유에서 사역동사로 파생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통사적 부정과 형태적 부정의 의미적 차이에 관하여 Jespersen(1917)은 부정접사에 의한 형태적 부정과 not을 사용한 통사적 부정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⁵⁾

5) non-은 자신이 첨가된 단어와 원래의 단어 사이에 이원적 대조를 보인다는 점에서 여타의 부정 접두사 -un-, -dis-, -in과 구별되며, non-은 very, rather, more와 같은 정도(degree)를 나타내는 수식어와 함께 쓰일 수 없다.

(i) a. This is a very unscientific/*non-scientific method.

b. It's a rather un-American/*non-American gesture.

어휘적 부정에도 접두사의 종류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non-은 un-보다는 not과 동일한 모순부정(contradictory negation)을 보인다. 즉 Christian, human과 non-Christian, nonhuman은 전체의 경우를 둘로 양분했을 때, 중간단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Christian이면서, non-Christian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un-Christian과

- (13) a. *Marina is neither happy nor not-happy, but just fine.
 b. Marina is neither happy nor unhappy, but just fine.
- (14) a. *Marina is neither honest nor not-honest, but just common.
 b. Marina is neither honest nor dishonest, but just common.

(13a)의 happy/not-happy와 (14a)의 honest/not-honest는 모순관계를 보인다. 하지만 (13b)와 (14b)에서 happy/unhappy와 honest/dishonest는 각각 모순관계가 아닌 반대관계를 보인다. 즉 (13b)와 (14b)의 happy/unhappy와 honest/dishonest가 동시에 부정되어도 제3의 값이 존재하기 때문이다.⁶⁾

위와 같이 형용사 부정에 있어 dis-와 un-은 유사한 성격을 보인다. 즉 dis-와 un-은 [상태성]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나 분사뿐만 아니라 동사에 첨가되어 부정적 의미의 대립어를 파생한다. 그러나 dis-와 un-이 동사에 첨가될 때 관련해 아래와 같은 새로운 의문점이 생긴다. 즉 dis-는 동사와 결합되어 부정성 의미 외에도 회귀성이나 탈취성 의미의 대립어를 파생하는 반면, un-은 동사와 결합되어 회귀성/탈취성 의미의 대립어를 파생하고, 부정성 의미의 대립어를 파생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4.2절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Horn and Miller(2005)이 제시한 (15)를 아래에 반복해 보자.

- (15) Once we construct 'order' from 'chaos', we find it incredibly difficult, if not impossible to unsee order.

unhuman의 경우는 반대부정(contrary negation)으로, 이 반대부정은 어떤 기준(norm)으로부터 극단적인 이탈(deviation)을 의미한다. 각각 접사와 결합되지 않은 상태의 Christian과 human을 각각 부정시켰을 때, 중간단계가 존재한다. 이들의 관계는 young과 old 같이 젊지 않다는 것이 반드시 늙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과 일치한다. (Marchand 1969).

6) 대립하는 한 쌍의 단어의 의미관계가 상보적(complementary)일 경우에는 pivotal region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true와 untrue는 상호배타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의 부정이 다른 하나의 의미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complementary관계에 있는 쌍의 예는 다음과 같다. dead: alive, open: shut, hit: miss (a target) (Cruse 1986:199).

(16) [DO (x,[do'(x)])] CAUSE [BECOME NOT(DIS) seen(y)]

(17) [DO (x,[do'(x)])] CAUSE [BECOME seen(y)]

(15)에서 unsee가 (16)과 같은 의미구조를 갖는다면, 접두사 un-과 결합되기 전 see는 (17)과 같은 사역성 의미구조를 가져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첫째, 어휘항목에 두 개의 see 즉 상태동사 see와 사역동사 see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둘째, 접두사 un-은 사역을 의미를 포함하는 자신의 의미구조를 가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 첫 번째 가정은 동음이의어적 분석으로 4.1절에서 두 번째 가정은 '두 개의 un-'의 분석으로 4.2절에서 각각 살펴볼 것이다. Sung(2006)은 단순히 un+타동사의 의미구조만을 다루고 있으나, un+타동사의 파생과정에 대한 이 두 가지 가정은 새로운 시도이다.

4.1 동음이의어적 분석

우리는 여기서 동사 see는 동음이의어이고 어휘항목에 사역동사 see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를 어휘적 공백으로 가정해 보자.

van Valin과 LaPolla(1997)는 영어동사 분류를 상태동사(state), 행위동사(activity), achievement(성취동사), accomplishment(완수동사), active accomplishment(행위성 완수동사)의 기본 5종류와 이에 상응하는 causative state(사역성 상태동사), causative activity(사역성 행위동사), causative achievement(사역성 성취동사), causative accomplishment(사역성 완수동사), causative active accomplishment(사역 행위성 완수동사)의 사역동사 5종류 등 총 10종류로 주장하고,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한다.

(18) a. 상태동사:

The boy friend fears her.

b. 사역성 상태동사:

The dog frightens the boy.

(19) a. 행위동사:

The ball bounced around the room./

b. 사역성 행위동사:

The girl bounced the ball around the room.

(20) a. 완수동사:

The ice melted.

b. 사역성 완수동사:

The hot water melted the ice.

(21) a. 성취동사:

The balloon popped.

b. 사역성 성취동사:

The cat popped the balloon.

(22) a. 행위성 완수동사:

The sergeant marched to the barracks.

b. 사역 행위성 완수동사:

The sergeant marched the troops to the barracks.

여기서 우리는 어휘적 공백의 가정에 기초하여 see는 상태성 타동사이고 이 동사에 대립하는 동음이의어로서 추상적인 사역동사 see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아래 (23a,b,c,f)에서 un-이 첨가된 동사들은 사건성 타동사(eventive transitive verb)들이나, (24d,e)에서 un-이 첨가된 동사들은 상태성 타동사(stative transitive verb)들이다. 그러나 모든 예가 공통적으로 회귀성 의미를 지닌다(Horn and Miller 2005).

(23) a. The idea was to unbuild in an environmentally responsible way, a house that had outlived its usefulness. More than 95% of the salvageable materials in the house were removed and recycled. "Demolition is cheap."

b. You cannot unmake history.

c. I wish I could unsay anything that many have hurt you; I take back those words.

d. Once we construct 'order from 'chaos', we find it incredibly difficult, if not impossible to unsee order.

e. Who can sing a song to unfrighten me? (title of song)

f. Do you soak the dried peppers to undry them?

(23a-f)의 예는 van Valin (1993)의 가정에 근거하여 (24a-f)의 논리구조로 표시될 수 있다.

- (24) a. [do'(x)] CAUSE [BECOME NOT built(y)]
 b. [do'(x)] CAUSE [BECOME NOT made(y)]
 c. [do'(x)] CAUSE [BECOME NOT said(y)]
 d. [do'(x)] CAUSE [BECOME NOT seen(y)]
 e. [do'(x)] CAUSE [BECOME NOT frightened(y)]
 f. [do'(x)] CAUSE [BECOME NOT dried(y)]

우리는 각각의 y가 (24a)에서 건축되지 않는 상태로, (24b)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로, (24c)에서 말해지지 않은 상태로, (24d)에서 보여지기 전의 상태로, (24e)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던 상태로, (24f)에서 말려지지 않은 상태로 회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an Valin과 LaPolla(1997)는 기본적인 동사들과 이에 상응하는 사역동사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un-이 [상태성] 의미자질을 갖는 대부분의 어휘들 즉 형용사나 분사와 자유롭게 결합될 수 있으며, 또한 [상태성] 의미자질을 포함한 상태동사(see)나 사건성적 의미자질을 포함한 행위동사(say)와 결합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접두사 un-은 사역의 의미를 지닌 (23e,f)를 제외한 (23a,b,c,d)의 비사역동사 build, make, say, see라는 기본동사에 상응하는 추상적 사역동사에 결합된다고 볼 수 있다. 어휘목록에 존재하지 않는 사역동사 build, make, say, see는 영어를 사용하는 모국어 화자의 머릿속에 의미구조의 형태로 잠재한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이는 이 잠재적 의미구조에 해당하는 부분이 현재 어휘적 공백 상태로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4.1절의 가정은 un-과 결합하는 모든 타동사들이 동일한 형태의 사역동사를 동음이의어로 가진다는 사실을 상정하고 있다. 이 동일한 형태의 사역동사는 현시적일 수도 있고 혹은 추상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가정은 동시대적으로 존재하는 어휘항목에 너무나 많은 추상적인 단어를 상정한다는 측면에서 지나친 일반화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4.2 두 개의 Un-

접두사 un-이 형용사와 결합할 때 사역의미가 없는 어기에 결합되지만 동사에 결합될 때 해당 동사는 반드시 사역의미를 갖는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개의 un-을 가정한다.

첫 번째 un-은 통상 [상태성] 의미자질을 가진 형용사나 타동사에서 파생된 과거분사에 첨가되어 부정 대립어를 파생한다.⁷⁾ 두 번째 un-은 타동사에 첨가되어 회귀성 혹은 탈취성 의미의 대립어를 파생한다. 후자의 un-은 해당 타동사의 의미구조에서 [상태성] 의미자질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 의미구조에 사역성 의미를 더해준다.

Alsina(1992)는 사역구조가 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첫째, Causing event와 Caused event라는 두개의 사건구조가 필요하며, 둘째, 최소한 두개 이상의 논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즉 un+타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은 Causer와 Causee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제약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25) (i) Causer를 포함하는 Causing event가 존재한다.
- (ii) Causing event는 Causee를 포함하는 Caused event를 함축한다.

Causing event는 Causer를 포함하고 있으며, Causing event는 Caused event에 포함된 Causee에 영향을 미친다. (25)에 근거해 un-은 논항이 하나인 자동사와는 결합될 수 없다. 이는 2장 표2에서 접두사 un-이 자동사와 결합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 반면에 제약조건 (25)와 상관이 없는 접두사 dis-는 결합되는 해당 어휘가 사역성 의미를 가지든지

7) unclean, uneven, unfair, unripe, unwise, unafraid, unfit, unfree, unsmooth, un-American, unbecoming, unbefitting, unbending, unending, unerring, unfailing, unfeeling, unflagging, unrelenting, untiring, unbegun, unborn, unbought, unbound, unburied, unarmed, unbacked, unbraced, unseen. 여기서 un-은 분사와 자유롭게 결합한다. 이 때 형용사 'un+분사'의 긍정 대응물 즉 분사형 형용사는 대부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많은 경우에 있어 형용사 'un+분사'에 대응하는 'un+타동사'도 존재하지 않는다.

가지지 않든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단지 해당 어휘의 의미구조에서 [상태성] 의미자질만을 부정할 뿐이다. 그러므로 dis-는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해당동사가 자신의 의미구조에 상태성 의미자질을 포함할 경우 그 해당동사와 결합할 수 있다.

4.2절의 가정은 어원적으로 영어에 두 개의 un-이 존재한다는 Marchand(1969)의 주장과 일치한다. Marchand가 주장하는 두 개의 un-에서 한 종류는 고대영어에서 형용사와 결합되어 부정성 의미를 제기하는 un-이고 다른 종류는 어원적으로 고대영어 and-과 ond-로 거슬러 올라가는 접두사 un-이다. 후자는 ‘반대로’(opposite)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ond-는 자음 앞에서 on-으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un-에게 자리를 양보한다. Marchand(1969)의 주장에 따르면 ond-에서 유래한 un-은 매우 생산적으로 동사에 첨가되어 회귀성 의미를 갖는다.

접두사 un-은 ‘접두사는 어휘 파생과정을 통해 어기단어의 품사를 변형시키지 않는다’는 Siegel(1979)의 가정을 준수한다. 하지만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un-이 자동사에 결합될 수 없고 타동사에만 결합된다는 사실은 un-과 결합되는 동사의 논항의 수가 un+타동사의 파생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즉 un-은 자신과 결합하는 동사의 외부논항인 행위자역(agent)나 경험자(experiencer)에게 Causer역을 더하여 주고, 내부논항인 대상역(theme)이나 목표역(goal)에게 Causee역을 더하여 준다.

5. 결론

영어 부정접두사 중 가장 강력한 파생력을 지닌 dis-와 un-의 사용을 비교하고, 각 접두사의 특성을 결합된 해당동사의 의미구조에서 찾으려고 노력했다. 두 접두사는 공통적으로 결합하는 동사 의미구조에서 [상태성] 의미자질만을 부정한다. 그러나 두 접두사 간에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dis-는 결합되는 동사의 의미구조를 변형시키지 않고 [상태성] 자질만을 부정하는 반면 un-은 사역동사의 의미구조 내에서 존재하는 [상태성]자질을 부정하는 것은 dis-와 동일하나 결합되기 전 사역의미를 포함하지 않는 동사가 un-과 결합 후 사역의미를 가지게 된다. 둘째, dis-는 형용사, 자/타동사와 결합할 수 있는 반면 un-은 형용사, 타동사와 결합하지만 자동사와

는 결합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은 un+타동사는 항상 사역동사이며 이 파생어는 사역성 제약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가정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설명된다. 우선 사역성 제약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un-과 결합되는 동사는 causer와 causee라는 두 개의 논항이 필요하고 이런 이유로 un-은 자동사가 아닌 타동사와 결합해야 한다. 이 논문은 첫 번째 차이점과 관련하여 두 가지 가정을 제시한다. 즉 모든 타동사에는 사역성을 포함하지 않는 것과 사역성을 포함하는 것이 하나의 쌍(pair)으로 존재하며 일부의 경우는 쌍을 이루는 두 개의 형태 중에서 하나가 어휘항목에 실재하지 않는 추상적인 형태로 존재한다. 하지만 이 가정은 너무 많은 예외를 상정해야 한다. 그래서 이 논문은 Marchand(1969)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 개의 un-이 존재한다는 가정을 따른다.

참고문헌

- Alsina, A. (1992). "On the Argument Structure of Causatives," *LI* 23, 517-555.
- Cruse, D. A. (1986). *Lexical Seman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rn, Laurence and Philip Miller. (2005). <http://morbo.lingue.unibo.it/mmm/mm5-abstracats/horn-miller.pdf>.
- Klima, E. (1964). "Negation in English." in *The Structure of Language*, ed. by Fodor & Katz, 246-323.
- Marchand, Hans, (1969). *The Categories and Types of Present-Day English Word-Formation*. Munchen: Verlag C.H. Beck, .
- Richek, A. M. (2000). *The World of Words: Vocabulary for College Students*. 5th Editio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Siegel, D. (1979). *Topics in English Morphology*. Cambridge: MIT Press.
- Sung, T.-S. (2006). "Semantic Properties of Prefix un-,"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21(3), 311-329.

Van Valin, Robert D., Jr. 1993. A Synopsis of role and reference grammar. *Advances in role and reference grammar*, ed. by Robert D. van Valin, Jr., 1-164. Amsterdam: John Benjamins.

Van Valin, Robert D., Jr. and Randy J. LaPolla. (1997). *Syntax: Structure, Meaning and Fun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성태수

남서울대학교

330-707 충남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 21

전화: (041) 580-2167

이메일: taesung@nsu.ac.kr

Received: 30 March, 2007

Revised: 20 May, 2007

Accepted: 15 June, 2007